

또래 괴롭힘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과 정서조절능력의 조절된 매개효과

Effects of Peer Victimization on Behavior Problems of Children: Moderated Mediation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Emotion Regulation

1차원고접수: 2025.10.08. 수정원고접수: 2025.11.25. 최종게재결정: 2025.12.22.

최정원¹ · 임정하²

¹텍사스 A&M 대학교 심리 및 뇌과학과, 박사후연구원

²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Choi, JungWon¹

Lim, JungHa²

¹Dept. of Psychological and Brain Sciences, Texas A&M University

²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와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서울·경기 지역 초등학교 5~6학년 아동 143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해 PROCESS macro의 모형 4와 모형 14를 적용하여 매개모형과 조절된 매개모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은 또래 거부민감성을 매개로 문제행동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때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높을수록 거부민감성에서 문제행동으로 가는 경로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패턴이 확인되었다. 즉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자주 경험할수록 거부민감성이 높아지고 이는 문제행동의 증가로 연결되지만, 정서조절능력은 이 연계를 유의하게 약화시켰다. 본 연구는 거부민감성 모형을 아동의 또래관계 맥락으로 실증적으로 확장하고, 거부민감성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서 정서조절능력의 기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또래 괴롭힘, 또래 거부민감성, 정서조절능력, 문제행동, 학령기 아동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mediating effect of peer rejection sensitivit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emotion 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victimization and behavior problems of children. A total of 143 fifth- and sixth-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 completed self-report questionnaires. Using PROCESS Macro Models 4 and 14, both mediation and moderated mediation models were tested. Results indicated that peer victimization indirectly influence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through peer rejection sensitivity. Moreover, the indirect effect of peer victimization on behavior problems through peer rejection sensitivity was attenuated for children with higher levels of emotion regulation. Based on the rejection sensitivity model, this study extends prior work by identifying peer rejection sensitivity as a mechanism linking peer victimization to behavior problems in the peer context, while also highlighting emotion regulation as a protective factor that can buffer against the negative influence of peer rejection sensitivity. These findings offer valuable implications for preventive and intervention strategies in educational and counseling settings.

Keywords peer victimization, peer rejection sensitivity, emotion regulation, behavior problems, school-aged childre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령기는 아동이 학교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사회적, 학업적 요구에 직면하게 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과

정에서 학령기 아동은 다양한 문제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 아동의 문제행동은 학령기에 흔히 나타날 수 있지만 적절히 다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될 수 있으며 심리사회적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Miller-Slough & Booker, 2023). 이에 아동기 문제행동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살

Corresponding to 임정하 (Lim, JungHa)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E-mail, jhlim@korea.ac.kr

Copyright © 2025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퍼보고 초기에 개입할 수 있다면 아동의 적응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의 문제행동은 크게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로 구분된다. 내재화 문제는 우울, 불안, 위축 등과 같은 과잉 통제된 행동이라 할 수 있으며, 외현화 문제는 규칙 위반, 공격적 행동, 파괴성, 비행 등과 같은 과소 통제된 행동을 말한다(Achenbach & Edelbrock, 1978). 다양한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들 중에서도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은 아동이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본이 되는 사회적 기술의 부족이나 또래 거부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uimond et al., 2014; Rubin, Bukowski, & Parker, 2006; Schwartz, 2000). 사회적 위축이란 아동이 스스로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철회하는 행동을 의미하며(Coplan & Rubin, 2010), 공격성이란 타인이나 다른 대상을 향한 파괴적이고 처벌적인 행동을 의미한다(Spielberger, Jacobs, Russell, & Crane, 1983).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은 각각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로 구분될 수도 있으나 이러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은 공통적으로 또래 거부나 갈등을 많이 경험하며(Guimond et al., 2014; Rubin et al., 2006; Schwartz, 2000; Wichmann et al., 2004), 아동의 전반적 문제행동을 구성하는 핵심 요인으로 함께 다루어져 왔다(Achenbach & Rescorla, 2001; Rubin et al., 2006). 이에 따라 선행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 하위척도를 모두 포함한 광범위한 문제행동 지표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Deneault et al., 2021; Luan et al., 202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의 두 차원을 함께 고려하여 아동의 문제행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과 같은 아동기 문제행동은 다양한 요인과 관련되어 있으나, 그 중에서도 또래 거부와 같은 또래관계가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Dodge et al., 2003; Gooren, van Lier, Stegge, Terwogt, & Koot, 2011). 또래에게 거부당하지 않고 수용받는 것은 이 시기 아동들에게 주요한 발달 과업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Cicchetti & Toth, 1998; Masten & Coatsworth, 1998). 이 시기 아동들은 또래집단과 어울리며 사회적 규범과 기술을 익힐 기회

를 갖게 되는데 또래로부터 거부당하는 아동들은 이러한 기회가 부족하여 사회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보이거나 문제행동을 보일 위험이 있다(Gooren et al., 2011). 선행 연구(Christ et al., 2017; Kim & Nho, 2017)에 따르면 또래관계에서 소외당하거나 어려움을 경험하는 아동들은 우울감을 느끼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 문제행동을 보이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또래 괴롭힘 피해와 같은 지속적인 거부 경험은 약자를 대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일어난다는 점(Olweus, 1978)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래 괴롭힘 피해란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또래로부터 신체적, 언어적으로 공격을 당하거나 물건을 빼앗기는 등의 직접적인 괴롭힘과 또래집단에서 고의적으로 배제당하는 등의 간접적인 괴롭힘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서미정, 2008; Olweus, 1978; Salmivalli, Lagerspetz, Björkqvist, Österman, & Kaukiainen, 1996).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Christina et al., 2021; Tremblay-Perreault & Hebert, 2020). 그러나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어떠한 경로로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어떠한 요인이 이러한 관계를 완회시킬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이러한 매커니즘 및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는 또래관계 문제와 관련된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개입 및 예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거부민감성 모형(Levy, Ayduk, & Downey, 2001)을 바탕으로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또래 거부민감성과 정서조절능력의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거부민감성은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거부당할 것이라 예상하여 불안, 분노 및 우울을 느끼며 애매모호한 단서도 거부로 지각하고 거부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는 성향을 의미한다(박지윤, 정영숙, 2008; Downey, Lebolt, Rincón, & Freitas, 1998). Levy와 그 동료들(2001)의 거부민감성 모형은 이 성향의 형성과 발현 과정을 설명하는데, 발달 초기에 반복적 거부 경험이 축적되면 거부민감성이 형성되고, 이후 애매모호한 사회

적 단서에 노출될 때 이 성향이 활성화되어 과잉 경계와 강렬한 정서 반응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부모로부터의 거부적인 양육행동이나 또래 괴롭힘 등으로 인해 거부민감성이 발달할 수 있다(남가희, 홍상황, 2015; 변은실, 이주영, 2016; Kellij et al., 2024; Zimmer-Gembeck, Trevaskis, Nesdale, & Downey, 2014). 또한, 거부민감성은 애매모호한 단서와 같은 촉발 자극이 존재할 때 활성화되어 과민한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아동들은 애매모호한 단서를 쉽게 거부로 지각하여 이때 분노와 같은 강렬한 정서를 느끼거나 타인 혹은 자신을 비난하여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즉, 거부민감성은 과거 거부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며 이러한 성향은 거부 상황에서의 과민한 반응을 유발하여 문제행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의 거부민감성을 바탕으로 한 연구들(변은실, 이주영, 2016; 이경미, 박주희, 2016)은 과거의 거부 경험으로 형성된 사회적 거부에 대한 민감성이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기여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이경미, 박주희, 2016; Choi & Lim, 2023)은 주로 애착 이론(Bowlby, 1973)에 근거하여 부모-자녀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부모로부터의 거부 경험이 거부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거부민감성은 모든 상황에서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맥락의 특성에 따라 활성화 여부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부민감성이 활성화되는 구체적인 맥락과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최정원, 임정하, 2023; Levy et al., 2001; Romero-Canyas et al., 2010). 예를 들어, 부모나 교사와의 관계에서는 거부 경험이 없을지라도 또래관계에서 거부를 경험한 아동은 또래관계 맥락에서만 거부민감성이 활성화될 수 있다(최정원, 임정하, 2023).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또래집단의 중요성이 더 커지며(정옥분, 2018) 학령기 아동의 거부민감성에 또래 거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Kellij et al., 2024; Zimmer-Gembeck et al., 2014)를 고려해보면 또래관계 맥락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부와 이에 대한 인지-정서적 반응에 대해 주

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또래 거부민감성을 매개로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래관계 맥락에서 이러한 경로에 대한 검증은 상담 및 학교현장에 보다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또래관계 맥락에서 수행된 연구는 많지 않지만 일부 연구들(홍상황, 이정연, 2013; Beeson, Brittain, & Vaillancourt, 2020; McLachlan et al., 2010)에서 또래로부터의 괴롭힘이나 거부를 당한 경험이 거부에 민감한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거부에 민감할수록 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 등 문제행동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정원, 2023). 또한 거부당한 이유를 자신에게 돌릴수록 위축되어 우울을 느끼며 또래에게 보복심을 느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Zimmer-Gembeck, Nesdale, Webb, Khatibi, & Downey, 2016). 이상의 선행 연구들과 거부민감성 모형에 기초해보면 또래로부터 반복적으로 거부당하여 또래 거부민감성이 강해지면 공격성이나 사회적 위축과 같은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또래 거부민감성이 높은 아동들은 거부를 피하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행동을 보이기 쉬운데 이러한 문제행동들은 실제로 또래로부터 거부당할 가능성을 높여 또다시 거부민감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는 거부민감성이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거부민감성이 높은 아동들은 이후 파괴적인 행동을 많이 보이거나 학교생활적응에도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Downey et al., 1998) 이러한 부적응적인 행동은 다시 거부민감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거부민감성이 부적응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끊을 수 있는 요인으로 Levy와 동료들(2001)은 정서조절능력을 제안하였다. 정서조절능력이란 특정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신의 기분과 정서 상태를 적응적으로 이끌어내는 능력을 말한다(곽윤정, 1997; 문용린, 1996). 개인의 정서 상태는 어떤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어떻게 지각하며,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Forgas & Locke, 2005). 또한 거부민감성은 강렬한

정서가 포함된 인지-정서적 과정이라는 점에서(Romero-Canyas et al., 2010)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하는 능력은 또래 거부민감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Levy와 동료들(2001)에 따르면 정서조절능력은 거부민감성이 부적응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절요인으로 제시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절능력이 또래 거부민감성이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 연구에서도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거부민감성과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연결하는 주요한 경로로 나타났으며(박우람, 홍상환, 2015; Gardner, Zimmer-Gembeck, & Modecki, 2020), 정서조절능력에 따라 거부민감성이 아동의 내재화 및 또래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Ding et al., 2021). 또한, 아동이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고 긍정적 정서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높을수록 또래관계에서 수평적이고 상호적인 관계의 양상을 보이며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김시라, 김지신, 2018). 거부에 민감한 아동들은 거부를 지각했을 때 반사적으로 격렬한 반응을 보이며, 정서를 억제하거나 부정적인 정서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기 쉬우며 이는 문제행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또래 거부민감성이 높은 아동일지라도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를 잘 모니터링하고 조절한다면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또래 거부민감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따라 다른지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과 또래 거부민감성, 정서조절능력, 문제행동에서 성차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과 또래 거부민감성 및 정서조절능력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성별을 통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괴롭힘 피해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Paquette & Underwood, 1999).

거부에 민감한 성향 역시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시라, 김지신, 2018; 변은실, 이주영, 2016). 이에 또래관계에서 경험하는 거부에 대한 반응에 성차가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서조절능력과 관련해서는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슬픔, 불안, 분노를 경험할 때 더 적응적인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anchis-Sanchis et al., 2020). 과거 거부 경험과 거부민감성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커니즘 역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변은실, 이주영 2016; 이경미, 박주희, 2016) 본 연구에서는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 또래 거부민감성 및 정서조절능력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있어 성별을 통제할 것이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과 또래 거부민감성 및 정서조절능력, 문제행동에 성차가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성별을 통제한 후 아동의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또래 거부민감성을 매개로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또래 거부민감성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정서조절능력이 조절하는지 살펴볼 것이다(그림 1 참조). 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 고유의 맥락에서 아동기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거부민감성 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더해 본 연구는 또래 거부민감성의 부정적인 영향을 중재할 수 있는 요인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또래관계 및 문제행동 개입 시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아동의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과 또래 거부민감성 및 정서조절능력, 문제행동에 성차가 존재하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또래 거부민감성이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3.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또래 거부민감성을 매개로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조절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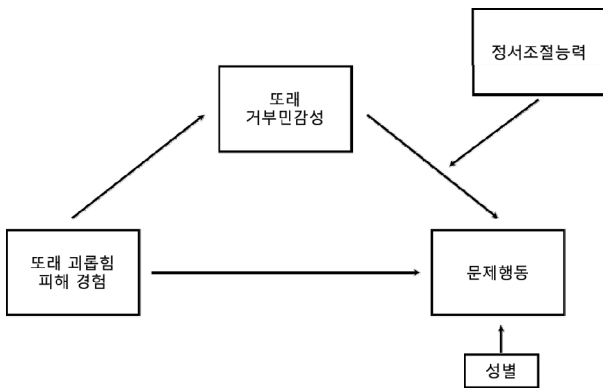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및 경기 지역 초등학교 5개교에서 표집한 5, 6학년 아동 143명이었다. 이는 1차 모집 인원 214명 중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71명을 배제 기준에 따라 제외한 인원이다. 연구에 참여한 아동 중 5학년은 84명(59%), 6학년은 59명(41%)이었으며 남학생은 60명(42%), 여학생은 83명(58%)이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부 39%; 모 33%), 전문대학 졸업(부 27%, 모 34%), 고등학교 졸업(부 17%, 모 24%), 대학원 졸업(부 13%, 모 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G*Power 3.1 Program을 활용한 사전 검정력 분석 결과, 회귀분석 시 보통 효과 크기 $f^2 = .15$, $\alpha = .05$, 검정력 .80 기준의 최소 필요 표본 수는 129명이었으며, 탈락과 결측 가능성을 고려해 이 수치 이상으로 연구대상자 모집을 실시하였고, 최종 표본이 이 기준을 상회하였다.

2. 측정도구

1)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Salmivalli와 동료들(1996)이 개발한 참여자 역할 질문지(Participant Role Questionnaire)를 토대로 서미정(2008)이 자기보고

식으로 수정 및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해아, 피해아, 가해동조자, 방관자, 피해방어자의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피해아 영역(7문항)만을 사용하였다. 피해아 영역은 또래관계에서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당하는 등의 직접적인 형태와 또래집단으로부터 고의적으로 배제당하는 등의 간접적 형태의 피해경험을 모두 포함하여 측정한다. 지난 6개월 동안 경험한 빈도를 바탕으로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없다(0점)’, ‘1 ~ 2회(1점)’, ‘3 ~ 6회(2점)’, ‘7 ~ 10회(3점)’, ‘11회 이상(4점)’의 5점 Likert 형식으로 아동이 응답하게 되어 있다. 예시 문항으로는 ‘반 아이들이 노는데 일부러 나를 끼워주지 않았다’, ‘반 아이들이 나를 때리거나 발로 찼다’ 등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또래로부터 직접적 및 간접적 괴롭힘 피해를 자주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서미정(2008)은 구성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피해아 영역의 내적 합치도 Cronbach의 α 는 .74로 보고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의 α 는 .78로 나타났다.

2) 또래 거부민감성

또래 거부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최정원, 임정하와 정예지(2024)가 구성하고 타당화한 아동용 또래 거부민감성 단축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7문항으로 우울·분노, 거부예상, 불안·위축, 해석편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또래관계에서 거부당할 것이라 예상하여 불안, 분노 및 우울을 느끼며 또래의 반응을 편향되게 해석하는 경향을 측정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형식으로 아동이 응답하게 되어 있다. 우울·분노 요인의 예시 문항으로는 ‘친한 친구들이 나를 빼고 놀고 있으면 화가 날 것 같다’가 있으며, 거부예상 요인의 예시 문항은 ‘친구들에게 같이 놀자고 하면 친구들이 싫다고 할 것 같다’가 있다. 불안·위축 요인을 측정하는 문항으로는 ‘친한 친구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내가 실수한 것이 있을까 봐 조마조마하다’가 있으며, 해석편향 문항으로는 ‘모둠활동에서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가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또래관계에서 거부당하는 것에 민감한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정원과 동료들의 연구(2024)에서 준거 관련 타당도와 집단비교 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내적 합치도 Cronbach의 α 는 거부예상 .86, 우울·분노 .88, 해석편향 .81, 불안·위축 .78, 전체 .9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Cronbach의 α 는 거부예상 .82, 우울·분노 .88, 해석편향 .85, 불안·위축 .76, 전체 .90으로 나타났다.

3) 정서조절능력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문용린(1996)이 제작한 정서지능 검사의 일부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정서지능 검사는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활용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정서조절 영역은 자기정서조절과 타인정서조절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기정서조절 하위척도(8문항)만을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3점)’까지 3점 Likert 형식으로 아동이 응답하게 되어 있다. 예시 문항으로는 ‘우울할 때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려 보려고 노력한다’, ‘화가 나면 화를 가라앉히려려고 노력한다’ 등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잘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윤정의 연구(1997)에서 구성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자기정서조절 하위척도의 내적 합치도 Cronbach의 α 는 .8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Cronbach의 α 는 .81로 나타났다.

4) 문제행동

아동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을 아동이 자기보고식으로 평가하였다. 먼저, 아동의 공격성을 평가하기 위해 Marsee와 동료들(2004)이 제작한 Peer Conflict Scale을 한영경(2008)이 번역한 척도를 토대로 하문선과 김지현(2013)이 수정 및 타당화한 한국 초기청소년 공격성 척도(K-PC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되었으나,

본 연구의 참여 아동(초등학교 5, 6학년)과 발달적으로 유사한 연령대이며 문항 내용 또한 해당 연령의 이해 수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6문항으로 반응적 외현적 공격성, 주도적 외현적 공격성,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확실히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 형식으로 응답하게 되었다. 반응적 외현적 공격성의 예시 문항으로는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 그 사람을 다치게 한다’가 있으며, 주도적 외현적 공격성의 예시 문항은 ‘나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위협할 때가 있다’가 있다.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는 ‘누가 나를 짜증나게 하면, 친구들에게 그 사람을 좋아하지 말라고 얘기한다’가 있으며,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에 대해 소문과 거짓말을 퍼뜨린다’가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반응적이거나 주도적으로 타인에게 상처나 고통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형태의 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하문선과 김지현의 연구(2013)에서 변별타당도, 수렴타당도, 준거관련 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내적 합치도 Cronbach의 α 는 주도적 외현적 공격성 .74,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72, 반응적 외현적 공격성 .77,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76, 전체 .9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Cronbach의 α 는 주도적 외현적 공격성 .63,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77, 반응적 외현적 공격성 .81,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68, 전체 .84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동의 사회적 위축을 평가하기 위해 Child Social Preference Scale(Coplan et al., 2004)를 13세 아동이 자기보고로 응답할 수 있도록 수정한 Child Social Preference Scale-Revised(Bowker & Raja, 2011)를 토대로 김원희, 이동형, 김문재와 남윤주(2016)가 국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한국판 청소년용 사회적 선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 역시 중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되었으나, 본 연구의 참여 아동(초등학교 5-6학년)은 발달적으로 유사한 연령대이며 문항 내용 또한 해당 연령에서 이해 가능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회적 고립, 수줍음, 비사교성, 회피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기 때문에 수줍음, 비사교성, 회피를 측정하는 15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형식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수줍음 요인의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편이다’가 있고, 비사교성 요인의 예시 문항으로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야 할 필요를 별로 못 느낀다’가 있다. 그리고 회피를 측정하는 문항으로는 ‘나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역채점)’가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자발적으로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에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원희와 동료들의 연구(2016)에서 변별 타당도, 수렴타당도, 준거관련 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내적 합치도 Cronbach의 α 는 회피 .82, 수줍음 .85, 비사교성 .8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Cronbach의 α 는 회피 .82, 수줍음 .83, 비사교성 .81, 전체 .8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 점수를 바탕으로 아동의 문제행동 점수를 산출하였다. 공격성 척도의 4점 Likert 응답 척도를 사회적 위축의 응답 척도와 동일하게 5점 Likert 형식으로 변환한 후, 두 점수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다.

3. 연구절차

본조사는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초등학교에 전화로 연락하여 연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후 교감 또는 부장교사가 허가한 5개 학교를 중심으로 표집을 위한 모집공고가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조사 대상 초등학교의 5, 6학년 담임교사에게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여 협조를 구한 후, 우편으로 초등학교에 연구 참여 설명서 및 동의서, 질문지 등이 포함된 패키지를 전달하였다. 이후 아동 편으로 부모에게 패키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통해 모집대상 아동의 부모에게 연구 참여에 관한 문의를 하였다. 아동과 부모가 모두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연구참여에 동의한 아동 214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질문지는 각 학교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배부하여 아동들이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응답에는 약 1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아동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답례품을 전달하였다. 배부된 질문지는 모두 회수되었고 회수된 질문지 중 아동의 응답이 불성실한 질문지 1부를 제외하고 214부(99.5%)를 분석하였다. 그 중 또래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아동 71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143명(66.8%)의 자료를 본 연구를 위한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상의 자료수집 과정은 소속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KUIRB-2023-0404-01)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과 PROCESS macro version 4.2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아동의 성별에 따른 연구변인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성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또래 거부민감성을 매개로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4.2의 Model 4(Hayes, 2022)를 사용하였다. 넷째,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또래 거부민감성을 매개로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정서조절능력이 조절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14(Hayes, 2022)를 사용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주요 변인들의 성차가 반복적으로 보고된 점을 고려하여 이상의 분석에서 성별을 통제하였다. 반면, 부모의 교육수준 등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본 연구의 이론적 경로와의 관련성이 명확히 보고되지 않아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III. 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여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였다. 각 변인의 왜도는 -0.38에서 1.53, 첨도는 -0.30에서 2.53 위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 충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Byrne, 2010; Hair, Black, Babin, & Anderson, 2010). 이어서 성별에 따른 독립표본 t 검증과 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 참조).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은 5점 Likert(0 ~ 4점) 응답을 기준으로 남학생들($M = 0.78$, $SD = 0.72$)과 여학생들($M = 0.78$, $SD = 0.56$) 모두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성차도 유의하지 않았다($t = -0.04$, $p = .97$). 또래 거부민감성은 여학생들($M = 2.40$, $SD = 0.69$)이 남학생들($M = 2.10$, $SD = 0.72$)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성차는 통계적으로 의하였으며($t = 2.59$, $p < .05$) 효과크기는 .43으로 성별은 작은 크기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 즉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또래로부터 거부당하는 것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통계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정서조절능력 3점 Likert(1 ~ 3점) 응답을 기준으로 남학생들($M = 2.24$, $SD = 0.47$)과 여학생들($M = 2.20$, $SD = 0.48$) 모두 중간 이상의 평균을 나타냈다. 이때 성차는 유의하지 않았다($t = -0.53$, $p = .60$). 문제행동은 5점 Likert(1 ~ 5점) 응답을 기준으로 남학생들($M = 1.77$, $SD = 0.36$)과 여학생들($M = 1.79$, $SD = 0.40$) 모두 중간 수치 이하로 나타났고 성차도 유의하지 않았다($t = 0.28$, $p = .78$).

상관분석 결과,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은 또래 거부민감성($r = .38$, $p < .001$)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아동이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자주 경험하였을수록 또래로부터 거부당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아동의 또래 거부민감성은 문제행동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35$, $p < .001$). 이는 또래로부터 거부당하는 것에 민감할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은 문제행동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r = -.25$, $p < .01$). 이는 아동이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할수록 문제행동을 적게 보임을 의미한다.

2. 아동의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아동의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또래 거부민감성을 매개로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표 2 참조). 이때, 아동의 성별을 가변수화(남아 1, 여아 0)하여 통제변인으로 매개모형에 투입하였다. 먼저, 아동의 또래 거부민감성을 예측하는 1단계 모형에서 성별($B = -0.31$, $p < .01$)과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B = 0.44$, $p < .001$)이 또래 거부민감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했다. 아동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2단계 모형에서는 성별과 또래 괴롭힘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3단계 모형에서 또래 괴롭힘과 또래 거부민감성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또래 괴롭힘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고 또래 거부민감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만 유의하였다($B = 0.20$, $p < .001$). 즉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은 또래 거부민감성을 통해 문제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표 1. 연구변인의 성별에 따른 차이 및 상관관계

	전체 ($n = 143$)		남학생 ($n = 60$)		여학생 ($n = 83$)		t	상관관계		
	M	SD	M	SD	M	SD		1	2	3
1 또래 괴롭힘	0.78	0.63	0.78	0.72	0.78	0.56	-0.04			
2 또래 거부민감성	2.27	0.72	2.10	0.72	2.40	0.69	2.59*	.38***		
3 정서조절능력	2.22	0.47	2.24	0.47	2.20	0.48	-0.53	-.02	-.12	
4 문제행동	1.79	0.38	1.77	0.36	1.79	0.40	0.28	.10	.35***	-.25**

* $p < .05$. ** $p < .01$. *** $p < .001$.

표 2.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또래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단계	경로	<i>B</i>	<i>S.E.</i>	β	<i>t</i>	LLCI	ULCI	<i>R</i> ²	<i>F</i>
1	성별 → 또래 거부민감성	-0.31	0.11	-0.21	-2.83**	-0.53	-0.09	.19	16.77**
	또래 괴롭힘 → 또래 거부민감성	0.44	0.09	0.38	5.06***	0.27	0.61		
2	성별 → 문제행동	-0.02	0.06	-0.02	-0.28	-0.15	0.11	.01	0.75
	또래 괴롭힘 → 문제행동	0.06	0.05	0.10	1.19	-0.04	0.16		
3	성별 → 문제행동	0.04	0.06	0.06	0.70	-0.08	0.17	.12	6.59**
	또래 괴롭힘 → 문제행동	-0.03	0.05	-0.03	-0.51	-0.13	0.08		
	또래 거부민감성 → 문제행동	0.20	0.05	0.20	4.25***	0.11	0.29		

** $p < .01$. *** $p < .001$.

추가적으로,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을 적용해 분석하고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또래 괴롭힘이 또래 거부민감성을 통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indirect effect = 0.09, 95% CI [0.04, 0.14], 표 3 참조).

3. 아동의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또래 거부민감성을 매개로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조절능력의 조절된 매개효과

아동의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또래 거부민감성을 매개로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또래 거부민감성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정서조절

능력에 의해 조절되는지 검증하였다(표 4 참조). 이때, 매개모형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성별을 통제변인으로 조절된 매개모형에 투입하였다.

먼저, 아동의 또래 거부민감성을 예측하는 모형에서 성별($B = -0.31, p < .01$)과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B = 0.44, p < .001$)은 모두 또래 거부민감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들의 설명량은 19%로 나타났다($F = 16.77, p < .001$). 다음으로, 아동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모형에서 또래 거부민감성 및 정서조절능력의 상호작용항($B = -0.19, p < .05$)이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항이 유의하게 나타나 아동의 또래 거부민감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정서조절능력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아동의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모형에서 예측변인들의 설명량은 19%로 나타났다($F =$

표 3.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의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

	<i>Effect</i>	<i>S.E.</i>	LLCI	ULCI
직접효과	-0.03	0.05	-0.13	0.16
간접효과	0.09	0.03	0.04	0.14

표 4.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또래 거부민감성을 매개로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조절능력의 조절된 매개효과

예측변인	또래 거부민감성(M)				문제행동(Y)			
	<i>B</i>	<i>S.E.</i>	95% CI		<i>B</i>	<i>S.E.</i>	95% CI	
			LL	UL			LL	UL
성별	-0.31**	0.11	-0.53	-0.09	-0.04	0.06	-0.08	0.16
또래 괴롭힘(X)	0.44***	0.09	-0.27	-0.61	-0.01	0.05	-0.11	0.10
또래 거부민감성(M)					0.19***	0.05	0.10	0.28
정서조절능력(W)					-0.18**	0.06	-0.31	-0.06
M × W					-0.19*	0.10	-0.38	-0.01
$R^2 = .19$					$R^2 = .19$			
$F(2, 140) = 16.77***$					$F(5, 137) = 6.40***$			

주. X = 독립변인, M = 매개변인, W = 조절변인, Y = 종속변인.

* $p < .05$. ** $p < .01$. *** $p < .001$.

6.40, $p < .001$). 조절된 매개지수 역시 유의하게 나타났다($B = -0.08$, $S.E. = 0.04$, 95% CI[-0.17, -0.01]). 이는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또래 거부민감성을 매개로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정서조절능력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래 거부민감성과 정서조절능력의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3가지 수준($M - 1SD$, M , $M + 1SD$)에서 정서조절능력에 따른 간접효과 크기와 유의성을 확인하였다(표 5 참조). 정서조절능력이 낮거나 평균 수준인 경우,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또래 거부민감성을 매개로 문제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경우, 조건부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조절능력에 따라 또래 거부민감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그림 2를 살펴보면, 정서조절능력이 높을수록 그래프의 기울기가 감소하였다. 이는 정서조절능력이 높아질수록 또래 거부민감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해짐을 의미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또래 거부민감성을 매개로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매개효과가 정서조절능력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의 또래 거부민감성과 정서조절능력의 평균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 및 문제행동은 모두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빈도가 높지 않고 문제행동 역시 상당히 적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또래 괴롭힘 피해나 이로 인한 문제행동이 한국 일반 아동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경험하는 일부 아동들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들이 경험하는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성차와 관련해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또래들로부터 거부당하는 것을 예민하게 받

표 5. 정서조절능력 수준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

정서조절능력	Effect	BootS.E.	95% CI (B)	
			BootLLCI	BootULCI
$M - 1SD$	0.13	0.04	0.05	0.20
M	0.08	0.03	0.04	0.14
$M + 1SD$	0.04	0.03	-0.00	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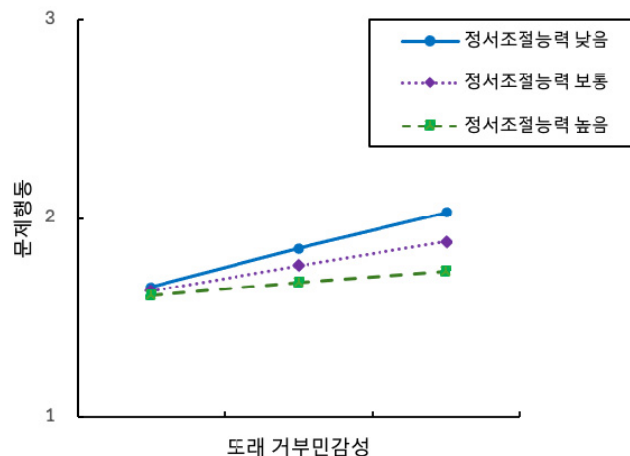


그림 2. 또래 거부민감성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

아들이고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거부민감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김시라, 김지신, 2018; 변은실, 이주영, 2016)와 일관된 결과이다. 반면에,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고려해볼 때,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에 성차가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거부 경험에 반응하는 경향에는 성차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여아들이 또래로부터의 괴롭힘 피해경험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에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과 이와 관련된 인지-정서적 반응 및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볼 때 성별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거부민감성 모형(Levy et al., 2001)을 바탕으로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또래 거부민감성을 통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또래관계에서 거부에 민감한 성향이 높아지고, 이러한 성향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을 자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부민감성 모형을 지지하는 결과로,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공격성 및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거부민감성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박혜정, 홍상황, 2014; 홍상황, 이경연, 2013)와 일관된 결과이다. 또래 거부에 민감한 아동들은 애매모호한 거부 단서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또래의 반응에 대한 대안적 설명을 제공하는 다른 맥락적 단서를 무시하고, 과거 거부 경험으로 형성된 거부당할 것이라는 예상을 바탕으로 애매모호한 상황조차도 즉각적으로 거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편향된 해석은 상처받은 감정이나 분노를 일으켜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행동과 같은 방어적인 반응으로 이어지기 쉽다(최정원, 2023; Levy et al., 2001). 즉 지속적으로 또래에게 괴롭힘 피해를 당한 아동들은 또래의 반응을 적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편향된 해석이 분노, 적대감, 낙담, 철회, 공격성 등 부적응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거부민감성이 상황특수적으로 활성화됨을 확인하였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거부민감성 모형에 따르면, 거부민감성은 모든 상황에서 활성화되

는 것이 아니라 상황특수적인 특성을 보인다. 즉 거부민감성은 또래와 같이 아동에게 중요한 대상에 의한 거부 상황에서만 활성화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거부민감성의 상황특수성을 고려하여 또래관계 맥락에서 거부민감성 모형(Levy et al., 2001)을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은 또래 거부민감성을 매개로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거부민감성은 또래로부터의 거부상황과 관련된 부호화, 예상 및 믿음, 정서 등 다양한 인지-정서적 과정을 포함한다(최정원 등, 2024). 따라서 이들 아동에 대한 개입 시 또래 거부상황에서 아동이 경험하는 해석편향과 거부당할 것이라는 예상이나 불안 및 분노와 같은 정서를 중심으로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아동의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 여부를 확인하고 이러한 과거 경험들이 또래 거부에 대한 반응 양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아동들의 내적 표상을 살펴본 연구(홍다겸, 2014)에 따르면, 아동기에 왕따를 당하거나 가까운 친구를 상실하는 경험을 한 경우 ‘나는 거부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거부 경험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또래 거부민감성이 높은 아동들의 경우 또래관계에서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로 거부당할까봐 긴장하거나 의기소침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최정원 등, 2024) 과거 또래로부터의 거부 경험이 특히 이들의 거부에 대한 예상 및 신념과 행동양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또래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는 정서조절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낮을 때와 평균 수준일 때는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또래 거부민감성을 높이고, 또래 거부민감성이 다시 문제행동으로 이어졌으나,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수준일 때는 그러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정서조절능력이 거부민감성에서 문제행동으로 가

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완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는 정서조절능력이 낮은 경우 거부민감성이 아동의 내재화 및 또래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경우 거부민감성의 부정적인 영향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Ding et al., 2021)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낮은 정서조절능력이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나타난 결과(박우람, 홍상황, 2015; Daniel et al., 2020)와도 유사한 맥락에 있다. 효과적인 정서조절은 거부라는 잠재적 위협에 대한 정서적 반응에 과도하게 집중하지 않도록 하여 스트레스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좌절과 부정적인 감정들을 완화할 수 있다(Ayduk et al., 2000). 따라서 괴롭힘과 같은 또래로부터의 지속적인 거부 경험이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으나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아동들은 거부 경험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잘 관리하고 조절하여(Ding et al., 2021) 문제행동을 적게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거부민감성 모형(Levy et al., 2001)에 따르면, 거부민감성이 높은 아동들은 또래관계에서 거부당하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행동을 보여 또래에게 또다른 거부를 당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거부민감성을 강화하여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서조절능력과 관련된 개입을 활용하는 것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개입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거부 경험이나 또래 거부민감성의 강화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또래 거부민감성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경향성이지만 정서조절능력은 교육 및 상담적 개입을 바탕으로 보다 향상될 수 있는 여지가 높다는 점(Daniel et al., 2020)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아동들의 경우 분노나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이 효과적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Quiñones-Camacho & Davis, 2020; Waters & Thompson, 2014) 프로그램 개입 시 자신에게 효과적인 정서조절전략을 탐색하도록 돕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정서조절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한 개입은 또래 거부민감성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또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횡단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추후연구에서 종단적 접근을 활용한다면 과거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과 또래 거부민감성 및 문제행동 간의 인과성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아동의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 또래 거부민감성, 정서조절능력 및 문제행동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들을 사용하였다. 또래관계나 문제행동과 관련된 평가에 있어서 주변 또래나 교사의 평가를 함께 활용한다면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있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피해경험이 없는 아동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이 보고한 또래괴롭힘 경험 빈도와 문제행동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았다는 점도 해석 시 유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 및 사회적 위축이라는 대표적인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행동을 통합적으로 다루었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두 문제행동을 구분하여 관련 경로를 보다 세분화하여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학문적 측면에서 거부민감성 모형을 바탕으로 또래관계 맥락에서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과 또래 거부민감성, 정서조절능력 및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이론적 모형을 확장하여 거부민감성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완화할 수 있는 요인을 함께 살펴보았다는 데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실질적 측면에서는 또래관계와 관련된 어려움에 대해 예방과 중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참고문헌

- 곽윤정 (1997). 정서지능의 발달 경향성과 구인타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시라, 김지신 (2018). 학령후기 남녀 아동의 거부민감성과 또래관계의 질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 *발달지원연구*, 7(2), 1-21.
<https://doi.org/10.22839/adp.2018.7.2.1>
- 김원희, 이동형, 김문재, 남윤주 (2016). 한국판 청소년용 사회적 선호 척도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3(2), 327-348.
<https://doi.org/10.16983/kjsp.2016.13.2.327>
- 남가희, 홍상황 (2015). 부정적 양육태도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또래괴롭힘 피해와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2(2), 111-134.
<https://doi.org/10.16983/kjsp.2015.12.2.111>
- 문용린 (1996). 한국학생들의 정서지능 측정 연구. 새로운 지능의 개념: 감성지능. 피터 셀로비 교수 초청 강연회 자료집. 서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 박우람, 홍상황 (2015). 아동의 거부민감성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 정서조절, 질투와 시샘의 순차적 매개효과. *초등상담연구*, 14(1), 1-23.
- 박지윤, 정영숙 (2008). 아동의 거절상황 구성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2), 15-37.
- 박혜정, 홍상황 (2014). 아동의 거부민감성과 또래괴롭힘 피해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및 억제의 매개효과. *한국초등교육*, 25(3), 1-18.
<https://doi.org/10.20972/kjee.25.3.201409.1>
- 변은실, 이주영 (2016). 정서적 학대가 아동의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거부민감성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4), 1125-1149.
- 서미정 (2008). 방관자의 집단 특성에 따른 또래괴롭힘 참여 역할행동. *아동학회지*, 29(5), 79-96.
- 이경미, 박주희 (2016).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남녀 아동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과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7(4), 31-46.
<https://doi.org/10.5723/kjes.2016.37.4.31>
- 정옥분 (2018).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최정원 (2023). 아동용 또래 거부민감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정원, 임정하 (2023). 아동의 또래 거부민감성 구성요인에 대한 기초연구: 문헌고찰과 아동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놀이치료학회지*, 26(2), 145-162.
<https://doi.org/10.17641/KAPT.26.2.4>
- 최정원, 임정하, 정예지 (2024). 아동용 또래 거부민감성 단축형 척도의 타당화. *인간발달연구*, 31(1), 119-131.
<https://doi.org/10.15284/kjhd.2024.31.1.119>
- 하문선, 김지현 (2013). 한국 초기 청소년 공격성척도 (K-PCS) 타당화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4(1), 71-101.
- 한영경 (2008).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 내적 요인.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다겸 (2014). 거부민감성향 청소년의 내적표상 재구성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고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상황, 이경연 (2013). 또래괴롭힘 피해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또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4(2), 283-315.
<https://doi.org/10.15753/aje.2013.14.2.012>
- Achenbach, T. M., & Edelbrock, C. S. (1978). The classification of child psychopathology: A review and analysis of empirical efforts. *Psychological Bulletin*, 85(6), 1275-1301.
<https://doi.org/10.1037/0033-2909.85.6.1275>
- Achenbach, T. M., & Rescorla, L. A. (2001). *Manual for the ASEBA school-age forms & profiles*.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Research Center for Children, Youth, & Families.
- Ayduk, O., Mendoza-Denton, R., Mischel, W., Downey, G., Peake, P. K., & Rodriguez, M. (2000). Regulating the interpersonal self: Strategic self-regulation for coping with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5), 776-792.
<https://doi.org/10.1037/0022-3514.79.5.776>
- Beeson, C. M. L., Brittain, H., & Vaillancourt, T. (2020). The temporal precedence of peer rejection, rejection sensitivity, depression, and aggression across adolescence.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51(5), 781-791.
<https://doi.org/10.1007/s10578-020-01008-2>
- Bowker, J. C., & Raja, R. (2011). Social withdrawal subtypes during early adolescence in India.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9(2), 201-212.
<https://doi.org/10.1007/s10802-010-9461-7>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Separation, Vol. 2*. New York, NY: Basic Books.
- Byrne, B. M. (2010).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Basic concepts, applications, and programming*. New York, NY: Routledge.
- Choi, J., & Lim, J. (2023). Does your childhood attachment make you bully your lover? The role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Emerging Adulthood*, 11(6), 1423-1432.
<https://doi.org/10.1177/21676968231193185>
- Christ, S. L., Kwak, Y. Y., & Lu, T. (2017). The joint impact of parental psychological neglect and peer isolation on adolescents' depression. *Child Abuse & Neglect*, 69, 151-162.

- <https://doi.org/10.1016/j.chiabu.2017.04.015>
- Christina, S., Magson, N. R., Kakar, V., & Rapee, R. M. (2021). The bidirectional relationships between peer victimization and internalizing problems in school-aged children: An updated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85, 101979. <https://doi.org/10.1016/j.cpr.2021.101979>
- Cicchetti, D., & Toth, S. L. (1998). The development of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Psychologist*, 53(2), 221-241. <https://doi.org/10.1037/0003-066X.53.2.221>
- Coplan, R. J., Prakash, K., O'Neil, K., & Armer, M. (2004). *Child Social Preference Scale (CSPS)*. APA PsycTests. <https://doi.org/10.1037/t27541-000>
- Coplan, R. J., & Rubin, K. H. (2010). Social withdrawal and shyness in childhood: History, theories, definitions, and assessments. In K. H. Rubin & R. J. Coplan (Eds.), *The development of shyness and social withdrawal* (pp. 3-20).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Daniel, S. K., Abdel-Baki, R., & Hall, G. B. (2020). The protective effect of emotion regulation on child and adolescent wellbeing.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9(7), 2010-2027. <https://doi.org/10.1007/s10826-020-01731-3>
- Deneault, A. A., Bakermans-Kranenburg, M. J., Groh, A. M., Fearon, P. R., & Madigan, S. (2021). Child-father attachment in early childhood and behavior problems: A meta-analysis.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2021(180), 43-66. <https://doi.org/10.1002/cad.20434>
- Ding, X., Ooi, L. L., Coplan, R. J., Zhang, W., & Yao, W. (2021). Longitudinal relations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adjustment in Chinese children: Moderating effect of emotion regulation.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82(6), 422-434. <https://doi.org/10.1080/00221325.2021.1945998>
- Dodge, K. A., Lansford, J. E., Burks, V. S., Bates, J. E., Pettit, G. S., Fontaine, R., & Price, J. M. (2003). Peer rejection and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74(2), 374-393. <https://doi.org/10.1111/1467-8624.7402004>
- Downey, G., Lebolt, A., Rincón, C., & Freitas, A. L. (1998). Rejection sensitivity and children's interpersonal difficulties. *Child Development*, 69(4), 1074-1091. <https://doi.org/10.1111/j.1467-8624.1998.tb06161.x>
- Forgas, J. P., & Locke, J. (2005). Affective influences on causal inferences: The effects of mood on attributions for positive and negative interpersonal episodes. *Cognition and Emotion*, 19(7), 1071-1081. <https://doi.org/10.1080/02699930541000093>
- Gardner, A. A., Zimmer-Gembeck, M. J., & Modecki, K. (2020). A longitudinal model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internalizing symptoms: Testing emotion regulation deficits as a mechanism and outcome of symptoms. *Journal of Personality*, 88(6), 1045-1057. <https://doi.org/10.1111/jopy.12549>
- Gooren, E. M. J. C., van Lier, P. A. C., Stegge, H., Terwogt, M. M., & Koot, H. M. (2011). The development of conduct problems and depressive symptoms in early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role of peer reject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40(2), 245-253. <https://doi.org/10.1080/15374416.2011.546045>
- Guimond, F. A., Brendgen, M., Vitaro, F., Forget-Dubois, N., Dionne, G., Tremblay, R. E., & Boivin, M. (2014). Gene-environment interplay in the link of friends' and nonfriends' behaviors with children's social reticence in a competitive situ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50(3), 956-967. <https://doi.org/10.1037/a0034354>
- Hair, J., Black, W. C., Babin, B. J., & Anderson, R. E. (2010). *Multivariate data analysis* (7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Educational International.
- Hayes, A. F. (2022).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3r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Kellij, S., Lodder, G. M. A., Giletta, M., Zimmer-Gembeck, M. J., Güroğlu, B., & Veenstra, R. (2024). Are there negative cycles of peer victimization and rejection sensitivity? Testing ri-CLPMs in two longitudinal samples of young adolescent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36(2), 844-856. <https://doi.org/10.1017/S0954579423000123>
- Kim, S., & Nho, C. R. (2017). Longitudinal reciprocal effects between peer relationship difficulties and aggressive behaviors in Korean adolescent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83, 41-47. <https://doi.org/10.1016/j.chilyouth.2017.10.024>
- Levy, S. R., Ayduk, O., & Downey, G. (2001). The role of rejection sensitivity in people's relationships with significant others and valued social groups. In M. R. Leary (Ed.), *Interpersonal Rejection*.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Luan, M., Zhang, X., Fang, G., Liang, H., Yang, F., Song, X., Chen, Y., Yuan, W., & Miao, M. (2022). Preconceptional paternal alcohol consumption and the risk of child behavioral problems: a prospective cohort study. *Scientific*

- reports, 12(1), 1508.
<https://doi.org/10.1038/s41598-022-05611-2>
- Marsee, M. A., Kimonis, E. R., & Frick, P. J. (2004). *Peer Conflict Scale (PCS)* [Database record]. APA PsycTests.
<https://doi.org/10.1037/t06331-000>
- Masten, A. S., & Coatsworth, J. D. (1998).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favorable and unfavorable environments: Lessons from research on successful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53(2), 205-220.
<https://doi.org/10.1037//0003-066x.53.2.205>
- McLachlan, J., Zimmer-Gembeck, M. J., & McGregor, L. (2010). Rejection Sensitivity in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Peer Rejection and Protective Effects of Parents and Friends. *Journal of Relationships Research*, 1(1), 31-40.
<https://doi.org/10.1375/jrr.1.1.31>
- Miller-Slough, R., & Booker, J. A. (2023). Monitoring externalizing problems among youth. In L. J. Farrell, R. C. Murrihy, & C. A. Essau (Eds.), *Handbook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treatment modules* (pp. 247-257). New York, NY: Academic Press.
<https://doi.org/10.1016/B978-0-323-99613-6.00008-9>
- Olweus, D. (1978). *Aggression in the schools: Bullies and whipping boys*. Washington: Hemisphere Publishing Corporation.
- Paquette, J. A., & Underwood, M. K. (1999). Gender differences in young adolescents' experiences of peer victimization: Social and physical aggression. *Merrill-Palmer Quarterly*, 45(2), 242-266.
- Quiñones-Camacho, L. E., & Davis, E. L. (2020). Children's awareness of the context-appropriate nature of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cross emotions. *Cognition & Emotion*, 34(5), 977-985.
<https://doi.org/10.1080/02699931.2019.1687426>
- Romero-Canyas, R., Downey, G., Berenson, K., Ayduk, O., & Kang, N. J. (2010). Rejection sensitivity and the rejection-hostility link i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78(1), 119-148.
<https://doi.org/10.1111/j.1467-6494.2009.00611.x>
- Rubin, K. H., Bukowski, W. M., & Parker, J. G. (2006).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In N. Eisenberg, W. Damon, & R. M. Lerner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6th ed., pp. 571-645). Hoboken, NJ: John Wiley & Sons, Inc.
- Salmivalli, C., Lagerspetz, K., Björkqvist, K., Österman, K., & Kaukiainen, A. (1996). Bullying as a group process: Participant roles and their relations to social status within the group. *Aggressive Behavior*, 22(1), 1-15.
[https://doi.org/10.1002/\(SICI\)1098-2337\(1996\)22:1%3C1::AID-AB1%3E3.0.CO;2-T](https://doi.org/10.1002/(SICI)1098-2337(1996)22:1%3C1::AID-AB1%3E3.0.CO;2-T)
- Sanchis-Sanchis, A., Grau, M. D., Moliner, A. R., & Morales-Murillo, C. P. (2020). Effects of age and gender in emotion regul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Frontiers in Psychology*, 11, 946.
<https://doi.org/10.3389/fpsyg.2020.00946>
- Schwartz, D. (2000). Subtypes of victims and aggressors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8(2), 181-192.
<https://doi.org/10.1023/A:1005174831561>
- Spielberger, C. D., Jacobs, G., Russell, S., & Crane, R. S. (1983). Assessment of anger: The state-trait anger scale. In J. N. Butcher, & C. D. Spielberger (Eds.), *Advances in personality assessment* (Vol. 2, pp. 159-187). Hillsdale, NJ: Erlbaum.
- Tremblay-Perreault, A., & Hébert, M. (2020). Uncovering the associations between child sexual abuse, peer victimization and behavior problems using child, parent and teacher reports. *Journal of School Violence*, 19(3), 336-348.
<https://doi.org/10.1080/15388220.2019.1697276>
- Waters, S. F., & Thompson, R. A. (2014).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effectiveness of strategies for regulating anger and sad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8(2), 174-181.
<https://doi.org/10.1177/0165025413515410>
- Wichmann, C., Coplan, R. J., & Daniels, T. (2004). The social cognitions of socially withdrawn children. *Social Development*, 13(3), 377-392.
<https://doi.org/10.1111/j.1467-9507.2004.00273.x>
- Zimmer-Gembeck, M. J., Nesdale, D., Webb, H. J., Khatibi, M., & Downey, G. (2016). A Longitudinal Rejection Sensitivity Model of Depression and Aggression: Unique Roles of Anxiety, Anger, Blame, Withdrawal and Retribut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4(7), 1291-1307.
<https://doi.org/10.1007/s10802-016-0127-y>
- Zimmer-Gembeck, M. J., Trevaskis, S., Nesdale, D., & Downey, G. A. (2014). Relational victimization, loneliness and depressive symptoms: Indirect associations via self and peer reports of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3(4), 568-582.
<https://doi.org/10.1007/s10964-013-9993-6>